

[평통사 창립대회 대회사]
이 땅에 평화와 통일을 선포합니다

홍근수 목사(본회 공동대표, 향린교회 주임)

북한의 핵문제를 둘러싸고 국내외적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창립되는 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한반도에 감도는 긴장의 이유는 어제 오늘 조성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50년 전에 우리 조국의 남반부와 북반부가 미국과 소련에게 각각 점령되었던 시점부터, 1948년 남북에 각각의 단독정부가 수립되었던 시점부터, 그 후 남북 간에 동족상잔의 유혈이 이 강산에 넘쳐 흘렀던 시점으로부터, 그리고 그 전쟁을 평화협정으로 마무리하지 못한 채 휴전협정이라는 이름 아래서 냉전과 군사적인 대치를 지속하고 있는 오늘 이 순간까지 전쟁위기의 바늘은 숨 가쁘게 오르락내리락하기를 거듭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로 그 바늘이 핵전쟁의 발발이라는 목시록적인 순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숨가쁜 순간에 이곳의 남반부의 서울 한복판에서 평화와 통일을 열어 나가겠다고 다짐하고 결의하는 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민족사적으로 중대한 한 사건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평화는 통일을 여는 길이고 통일은 평화를 여는 길임을 대내외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이 땅에서 평화와 통일을 향한 한 알의 밀알이 되고, 하나의 작은 불씨가 되기로 결단하고 전쟁과 분단의 이 땅에 평화와 통일을 열어가겠다고 결심하고 결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민족과 역사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이 거룩한 운동에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름을 회피하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부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또한 민족의 부름이고 하늘의 부름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부름의 소리를 듣고 나선 우리들은 이 땅의 수많은 양심적인 민족세력과 평화를 애도하는 동지들이 이 부름에 우리와 함께 나서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회에 대내외에 분명한 우리의 뜻을 선포합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길은 다양하고 그 운동이나 조직도 다원적일 수는 있지만, 분열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기회에 대내외에 우리의 결의를 선포합니다.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통일을 여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어떤 만족도 휴전도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기회에 대내외에 분명하게 우리의 투지를 선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내세우는 궁극적인 목적이 달성 될 때까지 어떤 유혹이나 타협에도 어떤 압력이나 탄압에도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친애하는 만장에 계신 동지 여러분, 평화와 통일을 열망하는 우리 모두가 한 발걸음으로 함께 대오를 맞춰 힘차게 나아갑시다.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여는 그 순간까지, 이 땅에 참된 통일의 새 시대를 여는 그 순간까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만세.

감사합니다.